어디서나 '경계' 활용할 수 있어야



지안 스님의 임제록 강설

㉗ 이언진여(離言眞如)의 경계

누가 물었다.

"어떤 것이 네 가지 상(相)이 없는 경계입니까?"

"그대가 한 생각 마음에 의심하는 것을 땅이 와서 막아버리고, 그대가 한 생각 마음에 애착하는 것을 물이 와서 잠기게 하고, 그대가 한 생각 마음에 성내는 것이 불이 와서 태워버리고, 그대가 한 생각 마음에 기뻐하는 것이 바람이 와서 날려버리는 것이니라.

만약 능히 이러한 이치를 알아버리면 경계에 휘둘리지 않고 어디서나 경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동쪽에서 솟아 서쪽에 사라지며 남쪽에서 솟아 북쪽에 사라지며 가운데서 솟아 변두리에 사라지며 변두리에 솟아 가운데서 사라지며 물 위를 다니기를 땅 위처럼 하며, 땅 위를 다니기를 물 위처럼 자유자재하게 하는 것이니라. 어째서 이렇게 하는가? 지(地)·수(水)·화(火)·풍(風)의 사대가 꿈과 같고 허깨비 같아 실체가 없어 공(空)함을 통달했기 때문이니라."

상(相)이 없는 경계를 물었다. 이는 생(生)·주(住)·이(異)·멸(滅)의 사상(四相)이 떠나간 생멸이 없는 경계, 다시 말해 공(空)한 경지를 물은 것이다. 외부 경계로부터 전혀 구속을 받지 않고 또한 지(地)·수(水)·화(火)·풍(風)의 사대에 구속받지 않는 생사가 없는 경지다. 이러한 경지에 들어가려면 사대가 공(空)함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상(相)을 벗어나는 것은 곧 무상(無常)을 뛰어넘는 것이다. 상(常)·낙(樂)·아(我)·정(淨)의 열반 사덕(四德)이 갖추어진 부처님의 세계가 상(相)이 없는 세계다.

〈금강경〉에서는 아상(我相)·인상(人相)·중생상(衆生相)·수자상(壽者相)의 사상(四相)을 가지고 말하면서 "상이 있으면 중생이고 상이 없으면 부처다"고 말했다. 상(相)이란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두고 하는 일반적인 말이지만 그것이 변하는 어떤 상태, 상황을 두고 네 가지로 구분해 '사상(四相)'이라 한다. 그런가 하면 인간의 의식에 관념적으로 만들어진 고집으로 어떤 주장을 내세우는 것도 상이다. 현상계(現象界)의 모든 것이 상인데, 배후의 본체계(本體界)를 말하려고 부득이 네 가지 '상이 없는 것'을 물었다. 이는 이언진여(離言眞如)의 경계를 물은 것이다. 사대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유자재하게 되는 것은 사대가 공(空)함을 깨달아서 얻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

중국의 방거사(龐蘊 · ?~808)가 남긴 임종게 법문이 전해지고 있다.

"다만 모든 있는 것을 공(空)하게 볼지언정 간절히 없는 것을 실(實)이라 여기지 말라. 세상 잘 살아라. 마치 그림자와 메아리 같은 것이니라.(但願空諸所有 切勿實諸所無 好住世間 猶如影響)"

여기서 있는 것은 상(相)이고 없는 것은 공(空)이다. 대혜종고(大慧宗杲 · 1089~1163) 선사도 〈서장〉에서 방거사의 이 게송을 인용하면서 당시의 사대부들에게 선수행을 가르쳤다. 생사해탈(生死解脫)을 목표로 삼는 선의 실제 수행에 있어서 사대육신을 벗어나는 죽음에 임해 좌탈입망(坐脫立亡)을 보여준 사례가 있었다. 임종을 앉은 채로 하는 것을 좌탈(坐脫)이라 하고 선 채로 숨을 거두는 것을 입망(立亡)이라 했다. 죽을 때의 자세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반문할는지 모르지만 임종에 임해서도 고도의 정신력으로 수행의 내공(內工)을 보여준 일면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삼조(三祖) 승찬(僧璨) 대사가 선채로 입적했다 하고, 육조(六祖) 혜능(惠能)은 좌탈을 하였으며, 오대 등은봉(五臺鄧隱峰)은 물구나무를 선채 입적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그 외에도 좌탈한 선사들의 이야기는 꽤 많이 전해진다. 좌탈입망이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는 초탈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곽산 경통(霍山景通)은 들판에 마른 나무를 쌓아 놓고 스스로 불을 붙여 불속에 들어가 앉아 자신의 몸을 태워 입적(入寂)하였다.

〈조계종 고시위원장〉

고행에서 벗어난 붓다



세상 속 경전읽기

㉗ 근본선(根本禪)

"(싯달타는) 스물아홉의 꽃다운 젊은 나이에, 아름다운 아내 야소다라가 그의 하나뿐인 아들 라훌라를 낳은 바로 그 밤에 아내와 아들, 아버지 그리고 권력과 영광을 약속하는 왕좌를 박차고, 가슴 미어지는 이별을 (몰래) 고하였다. 그리하여 인생의 영원한 진리, 속박을 벗어난 지극한 안락인 열반을 구하고자 숲속의 고독한 고행자가 되기로 하였다."
〈The Buddha's Ancient Path By PIYADASSI THERA 에서 번역〉

위대한 출가의 길에 오른 싯달타는 인생고(人生苦) 해탈법을 발견코자 헌신하며, 당시 선(禪)의 대가인 알라라 칼라마(Alara Kalama)와 웃다카 라마푸타(Uddaka Ramaputta)에게 해탈의 방법을 배우고자 하였다. 곧 스승들과 같은 경지인 무소유처정과 비상비비상처정에 도달하였으나, 이것들은 생사해탈의 궁극의 깨달음이 아니었으므로 스승을 떠나 홀로 공부하기로 결심하고 가야[지금의 보드가야]의 네란자라강가의 우루벨라에 이르렀다. 우루벨라는 고요한 우거진 숲인데다 맑은 강물까지 있어, 생사해탈을 위한 수행을 지속하기에 알맞은 곳이었다. 콘다냐를 비롯한 5명의 도반들과, 당시 인도에서 해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었던 고행을 시작하였다. 몸을 괴롭혀 조복 받아 몸의 속박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한 것이다. 극소량의 초근목피로 연명하면서 쓰레기 더미에서 주운 누더기를 걸치고, 가시덤불이나 무덤 사이에서 잠을 청했다. 극렬한 고행의 결과 남겨진 것은 극심한 영양결핍으로 인해 마른 갈대처럼 야위고 부서져가는 몸뿐이었다. 이렇게 6년을 보낸 후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으나 생사해탈의 목표에는 조금도 가까이 가지 못하였다.

고행이 무용함을 경험으로 체득한 그는 목표에 이를 수 있는 새 길을 모색하였다. 그때에, 어릴 때 봄에 부왕의 선농제(先農祭)에 따라갔다가 자신을 돌보던 시녀들도 구경에 팔려 곁을 비우고, 홀로 갯복숭아나무 아래에서 평안한 명상에 젖었던 기억이 났고, 그 길이 정각(正覺)의 길임을 확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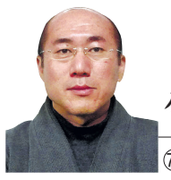
극단적 고행과 단식으로 죽음에 이를 지경으로 쇠약해진 몸으로는 더 이상 정진이 불가능하므로, 수자타의 유미죽으로 건강을 회복하였고, 다섯 동료는 싯달타가 고행을 깨고 타락했다고 여겨 실망해 떠나갔다.

초동(樵童) 소띠야에게 쿠사[길상초] 8다발을 얻어 펴고, 피팔라 나무[pippala tree. 후에 '깨달음의 나무', '보리수(菩提樹)'로 부름] 아래서 동쪽을 향해 결가부좌하고 앉았다. 스승 및 동료 없이 온전히 홀로인 이곳은 감각자극을 벗어날 수 있고 마음을 고무시키기에 적절한 곳이었다. 그는 불퇴전의 결단으로 마지막 힘을 쏟아 정진에 몰입하였다.

"피와 살이 다 마르고, 뼈와 가죽과 힘줄만 남을 지라도, 무상정등정각[無上正等正覺. Pali samma-sam-bodhi]을 얻기 전에는 결단코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 〈The Buddha's Ancient Path By PIYADASSI THERA에서 번역〉

어릴 때 경험했던 입출식념[入出息念. 호흡을 대상으로 한 마음챙김]에 전념하여 초선(初禪)에 들어가 거기에 머물렀고, 차례대로 제2선 제3선 그리고 제4선에 들어가 머물렀다. 이와 같이 오염된 마음을 닦아내고, 평온한 마음을 과거생의 기억을 떠올리는 숙주수념지[宿住隨念智. 宿命通]로 향해 저녁(오후 6시~10시)에 숙명통을 얻었다. 다시 마음을 사생지[死生智, 天眼通]로 향해, 모든 중생의 업보에 따른 윤회를 살펴, 한밤중(오후 10시~오전 2시)에 천안통을 얻었다. 그리고 번뇌를 소멸시키는 누진지[漏盡智. 漏盡通]로 향해 고집멸도(苦集滅道) 사제(四諦)를 깨닫고, 욕루[欲漏. 관능적 쾌락의 번뇌], 유루[有漏. (무엇이 되고자 하여 끌어당기는) 애착의 번뇌], 무명루[無明漏. 무지무명의 번뇌]의 삼루(三漏)를 새벽녘(새벽2시~6시)에 벗어났다. 이와 같이 사선(四禪)의 방법을 통해 깨달았으므로, 이를 근본선(根本禪) 또는 근본사선(根本四禪)이라 한다.

〈배광식 서울대 치의대학원 명예교수〉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㉝ 닦음의 길 13

사섭법, 중생 끌어당기기

〈四攝法〉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홍보를 하지 않으면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어렵다. 텔레비전이나 SNS 등을 통한 여러 광고는 모두 고객이 물건을 사도록 유인하는 행위다. 물건의 품질만 믿고서 가만히 있으면 고객은 오지 않는다. 불교에서의 전법(傳法) 활동 역시 마찬가지다. 붓다의 가르침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산속에만 머문다면 사람들은 쉽게 찾아오지 않는다. 중생들을 끌어당기는(攝)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사섭법(四攝法)은 바로 중생들을 진리의 세계로 이끌기 위한 네 가지 방법이자 자기 수행이라고 할 수 있다.

사섭법은 육바라밀, 사무량심(四無量心)과 함께 대승불교를 대표하는 수행법이다. 사섭법의 맨 처음은 보시다. 무언가를 나누는 보시는 육바라밀에서도 첫 번째 실천 덕목이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다. 도움이 절실한 사람에게 진심이 담긴 무언가를 나누는 일은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여러 종교단체에서 고아원이나 양로원 등을 찾아 나눔을 실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보시는 그 자체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

둘째는 애어(愛語), 즉 사랑스러운 말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다. 말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말하는 것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대개는 알 수 있다. 불교에서는 열 가지 악업(十惡) 가운데 말과 관련된 부분이 넷이나 차지할 정도로 중시하고 있다. 거짓말(妄語)과 아부하는 말(綺語), 이간 붙이는 말(兩舌), 험한 말(惡口)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런 악업에서 벗어나 바르고 정직한 말, 화합하고 부드러운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화한 얼굴에서 나오는 부드러운 말은 그 자체로 상대에게 신뢰감을 준다. 문수보살 게송처럼 "성 안 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부드러운 말 한 마디 미묘한 향"이 되는 것이다. 애어는 중생을 진리의 세계로 끌어당기는 중요한 덕목이다.

셋째는 이행(利行), 즉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다. 몸(身)과 말(口), 생각(意)으로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선행(善行)을 실천함으로써 그들을 진리의 세계로 이끄는 방법이다. 그렇다면 왜 다른 이에게 이로운 행위를 해야 할까? 그것은 바로 타인은 나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연기적으로 더불어 존재하기 때문이다.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선행을 베풀 수 있겠는가. 나와 '하나'라는 인식의 전환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이행이 나오는 것이다. 이행뿐만 아니라 네 가지 실천 모두 그 바탕에 연기적 사유가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

넷째는 중생들과 함께 일하고 생활하면서 그들을 깨침의 세계로 이끄는 동사(同事)다. 사찰에 가면 법당 벽면에 그려진 심우도(尋牛圖)를 많이 볼 수 있다.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과정을 10단계로 표현한 그림이다. 그래서 십우도(十牛圖), 또는 목우도(牧牛圖)라 부르기도 한다. 그런데 마지막 10번째는 다름 아닌 입전수수(入鄽垂手)다. 시장에 들어가 손을 내민다는 뜻이다. 산사에 고요히 앉아서 명상하는 것이 아니라 번뇌 가득한 중생들의 삶 속으로 직접 들어가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을 최고의 경지로 삼은 것이다. 한국불교의 대성(大聖)으로 추앙받는 원효는 고요한 산사에 안주한 것이 아니라 시끄러운 시장 속으로 들어가 술집 작부들의 애환을 들어주고 거지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을 불법의 세계로 인도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원효를 존경하는 이유다. 동사(同事)는 불교의 지향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실천이다.

이웃 종교에 비해 불교 신자들의 연령층이 높다는 분석이 많다. 이는 곧 젊은 층의 불자가 매우 적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들을 법당으로 인도하는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 속으로 직접 들어가(同事) 고민이 무엇인지 나누면서 따뜻한 위로의 말(愛語)을 건네야 한다. 또한 그들에게 진정 도움이 되는 일(利行)이 무엇인지 살펴서 정성껏 나누는(布施) 실천을 이어가야 한다. 이처럼 진심을 다해 다가갈 때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사섭법은 진심(眞心)이라는 무기로 중생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붓다의 길로 이끄는 적극적인 실천이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